

수성못에 있다가 대명동으로 이전한 충훈탑. 충훈탑을 처음 조성할 때 피란민들이 공사현장에서 낱품 팔이를 주로 했다고 한다.



냉차·아이스크림 팔고 막일 하며 생계 이어 90년대까지 이북5도민 행사 주로 수성못서

#1. 대구로 몰려든 40여만명의 피란민

전쟁을 일으킨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몰아쳤다. 죽이고 부수고 빼앗으며 무섭게 달려들었다. 적의 공격은 멈출 줄 몰랐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으며 우회하지 않았다. 아군은 결국 3일 만에 서울을 내주고 한강 이남으로 후퇴해야만 했다.

대전에 피신해 있던 이승만 정부는 1950년 7월16일 대구로 내려와 이곳을 임시수도로 삼았다. 남으로 내려 온 피란민들도 대구에 터를 잡고 고단한 삶을 이어갔다.

당시 인구 27여만명이었던 대구는 피란민 40여만명이 내려와 70만명이 북적이고 있었다. 연고도 없는 피란민들은 거처할 곳도 마땅치 않았고, 구호물자도 넉넉지 않았다. 난리 통에 생이별한 가족들은 소식조차 들리지 않았다. 먹고사는 문제보다 이산의 아픔은 더욱 피란민들을 힘들게 했다.

대구로 내려온 피란민들은 신천변이나, 신천 동쪽 금호강변과 주변 언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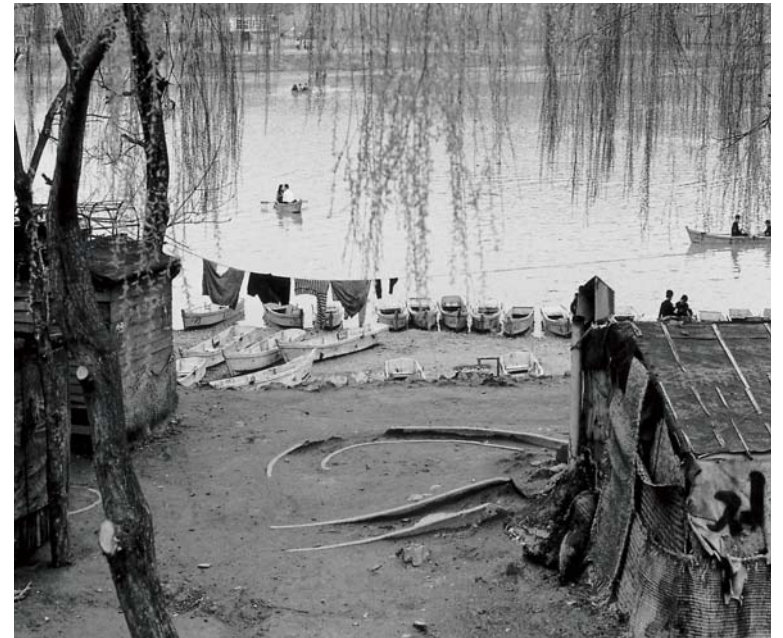
에 자리를 잡았다. 전쟁이 끝난 1960년대까지도 신천 동편에는 수많은 피란민들이 살았다. 방천시장에서 대백프라자 사이의 신천 서편 독에서부터 금호강변 동촌유원지 부근과 현재의 대구시 동구 신천동 MBC네거리 언덕에는 수많은 피란민들이 나무판자로 만든 '하코방'을 짓고 눈물겨운 타향 살이를 이어갔다.

그나마 하코방이라도 짓고 살던 이들의 사정은 나은 편이었다. 1960년대까지 대구 곳곳에서는 피란민들이 지은 무허가 가마니집이 난립하는 상황이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피란민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

#2. 수성못에 터를 잡은 피란민

신천변 상류 인근이었던 수성못에도 피란민 일부가 몰려들었다. 1950년대만 해도 수성못 주변은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현재의 호텔 수성 자리는 과수원이었고 그 아래에는 '애락원'이란 고아원이 있었다. 서울집, 낙동관 등의 주막들은 수성못을 찾은 이들의 목을 축여주었지만 별다른 위락시설은 없었다. 피란민들은 주로 수성못 남편에 정착해 살았다.

현재 몇몇 오리구이 식당이 위치한 자리에 전쟁 직후까지 10여가구의 피



대구로 내려온 피란민들은 주로 신천변이나, 금호강변과 주변 언덕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전쟁이 끝난 1960년대까지도 금호강변 동촌 유원지 일대에는 피란민이 나무판자로 만든 집을 짓고 생계를 이어갔다. 수성못 주변에도 전쟁 직후까지 10여가구의 피란민이 살았다.

6·25전쟁 당시 대구에는 40여만명의 피란민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피란길에 헤어진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이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당시 영남일보에는 피란민들의 이산의 아픔을 들어주기 위해 '찾는 사람' 광고를 무료로 내주기도 했다. 이를 통해 수많은 가족이 상봉했다.

란민이 살았다. 수성못 남편 호반 레스토랑 인근까지 피란민과 원주민 가옥이 줄지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1959년 태풍 사라호 탓에 모두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수성못의 피란민들은 그나마 형편이 좋았다. 그들은 일본인이 남기고 간 적산가옥에 세들어 살아, '하코방'에서 살던 다른 피란민보다는 사정이 좋았다.

이들은 수성못 주변에서 아이스크림이나 보리차를 끓여 설탕을 넣은 냉차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현재의 수성못 전경. 지금은 피란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당시의 기억은 여전히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6·25전쟁 당시 신천변 상류 인근이었던 수성못에도 피란민 일부가 몰려들었고, 이들은 수성못 남편에 정착해 살았다.

하지만 전쟁 통의 사정은 어디나 마찬가지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고 이 때문에 피란민 가정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부부싸움 소리가 났다.

1956년부터 수성못 남편에서 살았던 정인환씨(2014년 현재 83세·대구시 수성구 지산동)는 “비가 오면 피란민촌에서는 늘 싸움소리가 났다. 비 때문에 날뽀팔이 일마저 끊겨 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려운 형편 탓인지 이웃 간 다툼도 잦았다”며 당시 피란민들의 삶을 증언했다.

정씨는 “특히 이북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힘든 노동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많았다. 전쟁 통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참 어려운 시절이었다”며 피란민들의 고충에 대해 설명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란민들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원래 수성못에 있었던 대구 충혼탑(현재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을 조성할 때도 피란민들이 주로 날뽀팔이를 했고, 수성못 주변에 호텔을 지을 때도 수많은 피란민들이 일꾼으로 공사현장에 뛰어들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1990년대까지 이북5도민 행사가 주로 수성못에서 열렸다고 한다.